

방문 맞춤형복지 실현 최선

남원시, 노인·장애인 등 가정 방문 서비스 실시

남원시 희망복지단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가 시민들의 호평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에서 3년 동안 실시한 '찾아가는 상담실'의 후속사업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지

며, 이밖에도 수요자들은 생계비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 말벗이 되어 안부를 묻고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복합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상담을 진행해 대상자의 탈 빈곤을 유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송동면 김이뿐(여, 87세) 어르신은 자녀의 부양능력을 이유로 최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였지만, 자녀도 형편이 곤란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긴급지원 및 후원물품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원시 희망복지지원팀은 7명이 2인 1조로 3개조를 구성해 7월 현재 29개 마을 89가구를 방문했으며, 연말까지 60개 마을을 방문해 복지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이아영 희망복지팀 직원은 "가정 방문 자체만으로도 수요자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으며, 단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음속 깊이 있던 말도 꺼내어지면서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희망복지단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가 시민들의 호평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이다.

임실 농특산물, 전주권 소비자 공략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주권 도심 소비자들을 본격 공략한다.

19일 임실군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임실군 농·특산물 판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임실농 특산물을 공급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민 임실군수와 조환섭 롯데백화점 전주점장, 이승계 농협임실군 지부장, 최동선 임실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MOU 체결을 통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층에서 임실군 농·특산물 전용관이 마련된다.

전용관에는 임실군 관내 6개 업체가 참여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수상한 임실N치즈와 유제품, 치즈소시지, 복숭아, 다슬기 가공품, 장류, 과일잼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군은 청정지역인 임실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24일부터 8월 6일까지 롯데마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전국 119개 롯데마트에서 임실엔박송이 판촉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섬진강변 유색버논그림 지역 이미지 부각

순창군이 지난 6월 초에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만5000㎡(4500평) 논에 조성한 유색버논그림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창군의 3대 명산 중의 하나인 체계산을 찾고 있다.

체계산 송대봉에 오른 사람들이 섬진강의 멋진 풍경과 함께 한데 어울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논그림에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굽이굽이 치는 섬진강 줄기와 어우러진 팔아트 논그림은 등산객들로 하여금 묘한 감흥을 일으키며,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오라는 카피로 순창 이미지 부각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은 도시민들이 지친 삶의 일상 속에서 탈피해 마음의 안식과 힐링을 만끽하고 싶다면 주말에 이곳을 방문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을 도안한 팝아티스트 피터오 작가는 "그림 속의 폭포모양은 강진산 구장군 폭포, 물결모양은 섬진강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팝아트와 유색벼가 만나 이번 작품이 만들어졌다. 벼가 자라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그림이 연출될지, 무척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가을에 수확한 유색벼 오색미를 소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복지기관에 기부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앞장

시니어클럽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19일 남원시시니어클럽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2018년 처음 시작해 현재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남원성원고등학교 이어 남원시시니어클럽이 7번째로 지정되었다.

선도단체는 전체 직원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해 치매 예방에 힘쓰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협력기관이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와 시니어클럽은 이번 지정을 통해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참여와 교육을 통해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기 등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620-799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추경예산안 4416억원 편성 군의회 제출

순창군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9억원(7%↑)이 증가한 4416억원을 편성해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211억원, 특별회계 20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59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6억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의 재원은 제1회 추경 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교부세 등 152억과 국·도비 보조금 58억 등을 포함한 총 299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순창군 3대 비전 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순창의 미래 100년 먹거리 준비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10억원, 도심 활성화를 위한 순창을 중앙로 아간조명 명소화 사업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생안 농공단지 오피스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사업 7억 8000만원, 관광산업 활성화와 문화·체육 시설 확충으로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및 부속시설 건립 4억원과 쌓치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25억원이다.

농업·농촌 소득 증대와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청년 영농실습농장 조성 8억 5천만원과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18억원, 군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순창읍 복식리 소교량 정비사업 등 17억원, 읍면 길기 좋은 길 조성사업 10억원 등도 추가 편성됐다.

군 신역수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순창군 '3대 비전'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안이 군의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한 사업추진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생활SOC가족센터 공모사업 추진

여성단체협의회 등 공청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임실군이 생활SOC 가족센터 공모사업에 나섰습니다.

생활SOC가족센터 공모사업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이나 가족해체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생활SOC 가족센터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소통·교류공간 등으로 생활편의 시설이 같이 조성된다. 가족돌봄과 가

족교육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족센터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임실을 이장단과 임실시장 이용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주민 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23일에는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와 공청회를 통해 가족센터 건립과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기대 및 요구사항 등 의견을 모아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가족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최근 이 사업을 포함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며,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신규사업 발굴, 발굴보고회 개최, 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그동안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간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비롯, 임실을 행복누리원 조성, 우수면 행정복지센터, 임실 국민생활체육센터, 임실군 가족행복플러스센터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전 북도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과 가배분 물량에 맞춰, 2020년 우선 선정을 위해 생활SOC 가족센터를 포함한 '임실을 행복누리원(가칭)'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IMSEOL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